



사단
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 산업경제대상
수상자 공적서

(유)녹원
대표이사 유 종 희

- 일시 : 2014년 5월 31일(토)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사단 韓國産業經濟學會
법인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功績書 | (유)녹원 대표이사 유종희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 산업경제대상」 수상심사위원회는 유한회사 녹원의 대표이사 유종희님을 「2014년 산업경제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유종희님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만이 인류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환경산업 분야의 역군이자 환경전문경영인입니다.

유종희님이 이끌고 있는 유한회사 녹원은 수년간에 걸친 노력과 연구 끝에 하수슬러지 또는 폐수처리오니 등을 이용한 재활용재 생산이나 제조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know-how를 축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특허등록 7건, 특허출원 2건(국내1, 국제1))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폐수오니를 이용한 흙골재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계기로 2007년 유한회사 녹원을 설립한 유종희님은 이미 환경 분야에서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과 공적을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표창, 환경의날 표창(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봉사대상(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제학회는 환경에 관한 사회적 공헌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기업을 일으키고 확고한 경영철학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녹색창조경영, 사회공헌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종희님의 지대한 공헌을 인정함과 동시에 산업경제학계의 모범사례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2014년 산업경제대상」 을 드립니다. 유종희님의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功績內容

1. 미래를 통찰하는 경영인

“버려지는 하수슬러지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재활용 할 수는 없을까?”

2003년 7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량 대부분을 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 방식으로 처분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사태를 보고 언젠가는 이로 인해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해양배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 녹원의 유종희님이 자신에게 던진 끊임없는 물음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2일 우리나라가 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기까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공간 및 처리기술 부족,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경비 경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해양배출을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해역의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었으며, 폐기물 해양배출 최대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부끄럽게도 ‘런던협약 96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고, 음식물폐수 및 폐수슬러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고 이는 곧 녹원의 성공과 직결되는 정부의 당연한 결정이었고 유종희님의 통찰력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경영인



25톤 트럭 158,000대(2013년 기준)분량에 이르고 있는 하수슬러지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고심하던 유종희님은 하수슬러지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고형분이 우리나라의 토양과 유사한 점토 성분과 작물의 영양분 공급원인 유기질로 이루어져 있어 조림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석허가가 만료된 폐석산 복구용 토사류를 대체할 토사로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 성토재 개발에 착수하였고 환경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방법 개발 계획과 맞물려 사업 성공의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명감과 열정으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폐석산 복구용 성토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7년 세계 최초로 유기성슬러지를 이용하여 재활용 성토재인 흙골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더불어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설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나아가 하수 및 폐수슬러지 등 유기성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무해화시키는 적용기술도 개발하여 유기성슬러지 고화처리 분야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3. 환경과 지역을 가슴에 안은 경영인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유종희님의 개발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로지 환경과 지역, 나아가 인류의 거시적 안녕을 염원하는 좋은 심성과 미래 지향적인 경영철학으로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공존의 과제 해결을 위해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좁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인입니다. 유종희님의 가슴 속에는 항상 ‘산업폐기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환경보호’ 등의 단어들만 자리해 있습니다.

유종희님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회사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8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지역 발전 기부금 증정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고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 의료비 및 경조금지급과 경조휴가, 출산휴가제도 운영, 분기별 상여금 외 특별 상여금 지급, 우수사원 포상, 유류비 지원, 취미활동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모든 임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 산업경제대상 수상심사위원회」는 (유)녹원 유종희 대표이사님을 만장일치로 「2014년 산업경제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 「산업경제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광로

위원 박종찬(고려대) 박성태(원광대) 오현택(전북대) 이청호(조선대)

백자욱(창원대) 윤병선(건국대) 손성호(동아대) 이현상(전북대)



(유)녹원 대표이사 유 종 희

▶ 회사개요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96-30
- 주요생산품 :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재활용 성토재), 매립시설 복토재, 시멘트 원료
- 매출액 : 187억(2013년 기준)
- 주거래처 : 지방자치단체 하수종말처리장,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제지공장, 폐석산개발업체, 지방자치단체
- 보유시설 :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조시설, 부속 기술연구소, 환경 및 대기배출시설
- 지적재산권 : 특허등록 7건, 특허출원 2건(국내1, 국제1)
- 인증현황 : GR마크, 건마크, ISO9001/14001, 벤처기업인증

▶ 포상관계

- 전북도지사 표창(환경분야)
- 환경의날 표창장(환경보전협회 전북지회)
- 환경부장관 표창(환경부)
- 납세자의날 광주지방국세청장상(광주지방국세청)
- 환경봉사대상(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 연혁

- 2005~2007년 하· 폐수오니를 이용한 흙골재(재활용 성토재) 개발 완료
- 2007년 7월 (유)녹원 설립
- 2007년 11월 폐석산 적지복구용 흙골재 개발완료
- 2008년 1월 폐기물재활용신고(흙골재)
- 2008년 6월 하· 폐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 준공(제1공장)
- 2008년 7월 무기성 재료 : 환경마크획득(EL743, 무기성토목건축재료)
- 2008년 9월 유기성 재료 : 건마크획득(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2008년 12월 폐석산적지복구용 성토재 성능평가 연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2009년 7월 벤처기업 인증(기술신용보증기금)
- 2009년 11월 공정오니 및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성토재의 침하특성 평가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0년 12월 제2공장 준공
- 2011년 8월 GR인증 대상제품 공고(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07호)
- 2011년 12월 GR인증 품질표준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기술표준원공고 2011-468호)
- 2012년 1월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획득
- 2012년 8월 폐석산복구용고화물 장기적 화학안정성 연구(한국환경분석학회)
- 2013년 2월 GR마크 획득